

전남 영암군 월출산 기찬랜드, 오는 12일 본격 개장

16년 연속 무사고 기록 자랑... 다양한 문화 체험과 지역 상생 프로그램 마련

전남남도 영암군의 대표 여름 문화휴양지인 월출산 기찬랜드가 오는 12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2008년 개장 이후 단 한 건의 물놀이 안전사고 없이 16년 연속 안전 운영 기록을 이어오며, 매년 수많은 피서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기찬랜드는 월출산 자락의 맑은 계곡수와 천연 지하 암반수를 활용한 친환경 물놀이장으로, 다양한 크기의 야외 풀장과 실내 물놀이장이 마련돼 남녀노소 누구나 안전하게 즐길 수 있다.

(재)영암문화관광재단 시설관리팀 임선동 엔지니어는 개장 전부터 정기적인 수질 검사, 위생 점검, 안전요원 교육과 장비 점검 등을 통해 올해도 '무사고 기록' 유지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관계자는

"기찬랜드는 단순한 물놀이장이 아니라 믿고 찾을 수 있는 안전 휴양지로 꾸준히 사랑받고 있다"고 전했다.

개장일인 7월 12일에는 ▲아프리카 타악 퍼포먼스 ▲맨손 장어잡기 체험 ▲풍선 아트 ▲페이스 페인팅 등 남녀노소 모두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특히 지역 주민과 예술인들이 직접 참여하는 문화 프로그램은 매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지역 상생을 위해 운영되는 영암군 농특산물 판매관에서는 지역 농축협과 농장주들이 직접 생산한 여름 대표 과일과 무화과 아이스크림 등을 만나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지역 작가와 협업한 비치타올, 방수팩, 보냉백, 큰바위얼굴 티셔츠 등

여름 시즌 한정 굿즈도 관광객을 기다리고 있다.

주말과 공휴일에는 ▲비눗방울 놀이 ▲물총 대전 ▲자석 낚시 ▲초코아트 등 어린이와 가족 대상 체험형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상시 운영되며, 놀이와 예술이 결합된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매력을 더한다.

기찬랜드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입장료 50% 영암사랑상품권 환급 제도는 올해도 유지되며, 입장객은 지역 화폐를 받아 인근 상권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올해 새롭게 조성된 '베달존'을 통해 영암읍의 다양한 음식점 배달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어 편리 증진과 지역상권 활성



하가 조화롭게 펼쳐질 예정이다. 샤워실, 탈의실, 주차장, 그늘막 쉼터 등 쾌적한 편의시설도 확충해 이용객 만족도를 높였다. 영암/김희선 기자

원기 회복엔 완도 전복, 복날엔 전복 데이!

복날 맞아 관측 행사 및 완도청정마켓 무료 배송 이벤트

국내 최대 전복 생산지인 전남 완도군에서는 복날을 맞아 다양한 관측 행사를 진행한다.



완도군은 2014년부터 매년 삼복 시즌에 소비자들에게 원기 회복 및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전복 먹기를 권장하며, '복날엔 전복, 전복 데이'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한국전복유통협회에서는 전복 수요가 가장 몰리는 초복 기간에 맞춰 7월 11일부터 13일까지 세종시 상심장터 포털푸드(본점)에서 활 전복 8~9미(1kg) 35,000원, 17~18미(1kg)를 26,000원에 판매하는 특가전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전복 구매 고객 전원에게 전복을 2마리씩 증정하고 전복 홍보 캠페인도 진행할 계획이다.

중복에는 대형 마트인 이마트와 이랜드 김스클럽에서 전복 관측 행사를 연다.

완도 특산물 소풍물인 '완도청정마켓'에서는 전복 1만 원 이상 구매 시 무료로 배송해주는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군 관계자는 "전복 할인 행사를 통해 소비자들은 바다의 산삼 전복을 저렴한 가격에 드시고, 전복 소비 증대로 어가 소득에 보탬이 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청정 바다에서 나는 다시마와 미역을 먹고 자란 완도 전복은 각종 비타민과 철분, 칼슘, 칼륨, 단백질 등이 많이 들어 있어 '바다의 산삼'이라 불리며 여름철 최고의 보양식으로 꼽힌다. 완도/장선우 기자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7월 11일(금) 오후 6시 청춘신작로 어울림광장에서 버스킹 공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청춘신작로 버스킹은 오는 10월까지 열리는 정기 공연으로 매주 금요일 오후 6시에 개최하는 도심 속 문화 행사로 자리 잡고 있다.

이번 주 무대에는 총 6팀이 출연해 여름밤의 열기를 음악으로 식혀줄 예정이다.

매주 금요일 밤, 청춘신작로에서 만나는 청춘의 리듬!

11일 오후 6시, 청춘신작로 어울림광장서 펼쳐지는 젊음의 무대

▲감미로운 바이올린 선율의 '소리엘' ▲대중가요를 부르는 감성 보컬 '선율' ▲랩과 노래가 어우러진 '감성보컬' ▲플롯·첼로·피아노의 조화가 빛나는 '엘림양상발' ▲청량한 목소리의 '강서령(개인)' ▲밴드

사운드로 무대를 채울 '하모닉스'가 출연해 관객들과 호흡을 함께 할 예정이다.

무더운 여름 날씨를 고려해 청춘신작로 어울림광장에 그늘막을 설치하고, 시원한 물줄기를 뿜어내는 바다분수대를 가동 중

이다. 관객들이 공연 관람과 함께 더위도 식히고, 잠시 쉬어갈 수 있도록 최대한의 편의 시설을 마련했다. 청춘신작로 버스킹은 매주 새로운 출연진과 다양한 장르로 꾸며지며, 일상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할 열린 무대의 역할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폭염이 예상되는 8월 중엔 버스킹 공연을 잠시 중단하며, 9월부터 재개한다. 화순/김종환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카메라 뉴스



함평군, '혈관튼튼 관리하고당!' 건강교실 운영

전남 함평군(군수 이상익)이 지역 주민의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한 생활 실천을 위해 맞춤형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함평군은 2025년 하반기 만성질환예방교실 '혈관튼튼 관리하고당!'(이하 고당교실)이 7월 2일부터 17일까지 매주 수·목요일 운영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고당교실은 고혈압·당뇨병 환자와 관심 있는 주민 30여 명을 대상으로 함평군보건소에서 진행되며, 심뇌혈관질환 합병증 예방과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목표로 주민들의 건강한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기획됐다. 교육에는 간호사, 영양사, 운동지도사 등 전문인력이 참여해 '고혈압과 당뇨병의 이해 및 관리', '식이요법과 운동요법', '합병증 예방' 등을 주제로 실생활 중심의 강의를 제공한다. 함평/전경춘 기자



구례군, 섬진강 수달생태공원 물놀이장 무료 개장

전남 구례군은 여름철 무더위에 대비해 오는 7월 12일부터 8월 24일까지 섬진강 수달생태공원 물놀이장을 무료로 개장한다고 밝혔다.

수달생태공원 물놀이장은 매년 여름철 가족단위 이용객과 어린이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으며, 올해도 철저한 시설점검과 준비를 마쳐 이용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물놀이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매주 월요일은 물탱크 청소 및 시설물 점검을 위한 정기 휴무일이다. 우천 시에도 운영하지 않으므로 방문 전 운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물놀이장에는 샤워실과 화장실, 그늘막 등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약 6천 명 이상이 방문해 지역 대표 여름 명소로 자리 잡았다. 구례/한정호 기자



담양군, '집수리지원단 프로그램' 마무리

담양군(군수 정철원)은 지난 5월부터 진행된 '집수리지원단 프로그램'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10일 밝혔다.

집수리지원단 프로그램은 창평면 도시재생활장지원센터에서 매년 진행해 온 사업으로, 주민들이 스스로 노후주택을 손볼 수 있도록 실생활 중심의 기술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올해 프로그램은 슬로시티 교육장과 창평면 도시재생 사업지 대상지 일대에서 총 10회 차로 구성했으며, ▲타일과 줄눈 ▲인테리어 필름(시트지) ▲미장·도장 기초 ▲출장 집수리 실습(미장·도장) ▲생활 위생관리 ▲가구 수리 및 생활 목공(DIY) 등의 교육을 진행했다. 담양/이종욱 기자



새로운 에너지 세상

자연이 만든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
세상은 더 밝아지고
우리는 더 따뜻한 미래를 꿈꾸게 됩니다.

태양의 힘으로 움직이고,
바람이 만든 에너지로 밝게 빛나는 세상

한국전력이 깨끗한 에너지로
새로운 에너지 세상을 열어가겠습니다

